

2016년 지방직 9급 A책형 국어 해설

박우찬

노량진 월비스고시학원

수원 공무원사관학원

□ 출제 경향 분석

이번 시험의 두 가지 특징은 ‘독해 문항 증가’와 ‘한자 문제의 난도 상승’이다. 먼저 독해 영역(화법과 작문, 문학 산문 포함) 문제가 10문항이나 출제되었다. 작년에 6문항(화법과 작문, 문학 산문 포함)이 출제된 것과 비교할 때 문항 수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자 문제도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과 달리 한자 성어에 독음을 주지 않았고, 한자어 문제가 2문항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번 시험은 국어 영역 전반에 대해 기본을 충실히 다진 수험생에게 유리한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기본 실력 점검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접미사 ‘-적(的)’이 붙은 단어의 품사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2009년 국가직 9급에서 이미 유사한 유형이 출제된 바 있다. 따라서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착실하게 분석한 수험생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다른 영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자이음 한자어否運(비운)은 2011년 지방직 7급, 한자성어後生可畏(후생가외)는 2010년 지방직 9급, 제목 찾기 제시문은 2007년 국가직 9급에서 출제된 바 있다. 이 문제들만 제대로 보았다면 답을 찾는 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밖에도 곳곳에 기출 문제의 흔적이 산견된다. 자세한 것은 기출 해설 참고.

2016년		문항 수	출제 영역
문법 6	문법론	3	언어 일반 <1> 형태론(단어 형성) <1> 형태론(품사) <1>
	어문 규범	3	한글 맞춤법 <1> 띄어쓰기 <1> 적절한 어휘 <1>
어휘 4	관용구와 속담	1	속담 <1>
	한자, 한자성어	3	동자이음 <1>, 한자어 쓰임 <1>, 한자성어 <1>
문학 (산문) 3	고전 문학	1	주몽 신화 <1>
	현대 문학	2	현대소설(김동인 ‘광염 소나타’, 박태원 ‘천변풍경’) <2>
독해 7	독해	4	제목 <1>, 중심내용 <1>, 전개방식 <1>, 추론 <1>
	화법, 작문	3	토의 <1>, 토론 <1>, 글다듬기 <1>

우찬국어

문 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16년 지방직 9급]

- ① 열쇠, 새빨갳다 ② 덮밥, 질푸르다
- ③ 감발, 돌아가다 ④ 젊은이, 가로막다

정답 ② [단어 형성]

<해설> ② '덮밥, 질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우리말에서는 어말 어미가 생략되면 문장 만들기 규칙에 어긋난다. '덮(은)밥'은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었고, '질(고)푸르다'는 연결 어미가 생략되었다.

[오답 풀이]

- ① • 열쇠: '열다'의 관형사형 '열'과 명사 '쇠'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날짐승'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 새빨갳다: 접두사 '새-'가 어근에 붙은 파생어이다.
- ③ • 감(은)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감발'은 「1」=발감개. 「2」발감개를 한 차림새.
• 돌아가다: '돌다'의 연결형 '돌아'와 '가다'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 젊은이: '젊다'의 관형사형 '젊은'과 명사 '이'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가로막다: 부사 '가로'와 동사 '막다'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문 2. 맞춤법에 맞는 것은? [16년 지방직 9급]

- ① 희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편이 이유가 있겠지.
-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예요.
-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궜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정답 ③ [한글 맞춤법]

<해설> •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 '이에요/이에요'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받침이 없을 때)에는 '예요/여요'가 된다. 따라서 '거예요/거예요'가 된다.

- '들르다'의 관형사형은 '들른'이 맞다. 들린(x)

[오답 풀이]

- ① • ➡치러야. '치르다'의 활용형 '치러야'가 맞다. 어간 '치르'에 어미 '어야'가 붙어 어간 끝음절 'ㅡ'가 탈락하였다.
• 대가(代價)[대:가]는 사잇소리 현상이 있지만 한자끼리의 결합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댓가(x)
- ② ➡뒤편이다.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를 뜻할 때에는 '뒤편이다'로 써야 한다. 15년 국가직 9급에서 '처지다'가 출제된 바 있다.
• 뒤편이다: 물건이 뒤집혀서 젖혀지다. ㉠ 화투짝이 뒤편이다/바람에 현수막이 뒤편이다.
• '내로라하다'는 맞는 표기이다. 내노라하다(x)
- ④ • ➡잠가. '잠그다'의 활용형 '잠가'가 맞다. 어간 '잠그'에 어미 '아'가 붙어 어간 끝음절 'ㅡ'가 탈락하였다.
• '생각지'는 맞는 표기이다. 접사 '-하-'가 붙는 어근 받침이 안울림소리일 때는 '-하-' 전체가 탈락한다. 생각치(x)

문 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16년 지방직 9급]

-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정답 ① [띄어쓰기]

<해설> ① • 십여 ∨ 년. 접미사 '-여(餘)'는 앞의 어근에 붙여 쓰므로 '십여'가 맞고, '년(年)'은 단위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지금으로부터: 조사 '으로', '부터'를 연이어 쓸 때에는 앞 단어에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② • 정한 ∨ 대로. '대로'는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오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앞에 체언이 오면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수밖에' 구성에서 '수'는 의존명사, '밖에'는 오직을 뜻하는 조사이므로 '수밖에'는 적절하다.

③ • 요청 ∨ 시. 의존명사 '시(時)'는 앞의 단어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합성어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등은 예외이다.

• 재조정하여야. 여기서 '-하다'는 접사이므로 앞의 명사 어근 '재조정'에 붙여 쓴다.

④ • 추진력마저. '마저'는 조사이므로 앞 단어에 붙여 쓴다. '마저'는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감당할 ∨ 만한 ∨ 능력뿐. '감당할'은 본용언, '만한'은 보조용언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뿐'은 앞에 체언이 오면 조사이므로 앞 단어에 붙여 쓴다.

문 4.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지방직 9급]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①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 ②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 ③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④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정답 ② [글다듬기]

<해설> ②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끄는 접속부사 '그러나'가 맞다.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주로 환경과 교육을 통해 배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은 병렬적인 내용을 이을 때 사용하는 접속어이다.

우찬국어

[오답 풀이]

- ① 허물을 벗듯이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난다는 맥락이므로 ‘탈피하다’가 자연스럽다. ‘돌파하다’는 뚫거나 깨뜨릴 대상이 앞에 온다.
- 탈피하다(脫皮--):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 돌파하다(突破--): 「1」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다. 「2」일정한 기준이나 기록 따위를 지나서 넘어서다. 「3」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 내다.
- ③ 무생물 주어 ‘(중요한) 것은’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서술어 ‘(~는) 점이다/것이다/사실이다’가 와야 자연스럽다.
- ④ 이 단락의 중심내용은 ‘그러나’ 다음에 있다. 필자의 서술대로 창의적 사고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환경이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따라서’ 다음에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와야 한다.

문 5.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의 음이 다른 것은? [16년 지방직 9급]

- ① 否認 ② 否定
③ 否決 ④ 否運

정답 ④ [동자이음 한자어]

〈해설〉 ④는 ‘呑運(비운)’으로 읽는다. 여기서 ‘呑’는 막힐<비>가 된다. 나머지 ‘呑’는 ‘부’로 읽는다. 2011년 지방직 7급에 ‘呑運(비운)’이 출제된 바 있다.

ㅈ	아닐<부>	예) 否認(부인), 否定(부정), 否決(부결)
	막힐, 운수 나쁠, 괘 이름<비>	예) 否運(비운), 否塞(비색)
	기출	[11년 지방직 7급]

- 否運(비운): 「1」막혀서 어려운 처지에 이른 운수. 「2」불행한 운명.
- 否塞(비색): 운수가 꽉 막힘.

[오답 풀이]

- ① 否認(부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르하다고 인정하지 않음.
 ② 否定(부정):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③ 否決(부결):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문 6.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년 지방직 9급]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정답 ③ [언어 일반]

<해설> 밑줄 친 부분은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본다. 이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사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사고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③이다. ③에 따르면 말은 감동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언어의 역사적 성격, 자의적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② 언어의 자의적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물을 두고 각 언어마다 다른 말소리로 가리키게 된다.
- ④ 연속적인 시간을 언어로 분절해서 표현하는 언어의 분절적 성격,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문 7.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지방직 9급]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패널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패널 토의는 3 ~ 6인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유형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① ㉠과 ㉡은 모두 '셋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② ㉠과 ㉡은 모두 '셋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 ③ ㉡은 토의자가 셋강의 생태적 특성, 셋강 살리기의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 ④ ㉠은 '셋강 살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정답 ④ [토의의 종류]

<해설> '패널 토의'는 전문가들(배심원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토의 형식이다. 토론처럼 찬반 입장으로 나누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패널(panel) 토의: 시사적인 문제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대표자, 배심원)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후에 청중이 질문하는 토의를 말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면서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러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특징이 있다.
- 심포지엄(symposium): 학술적·전문적인 주제에 관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강연식으로 발표하는 토의를 말한다. 발표 후에 청중이 질문하고 사회자가 논의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다. 청

우찬국어

중은 참여가 제한적이지만 식견 있는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발표자 간에 토의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답 풀이]

- ① 전문가가 참여하고,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말하기는 모두 토의에 속한다. 토의는 최선의 해결책 도출이 목적임을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다.
- ③ 심포지엄에서는 토의의 하위 주제에 관해 전문가가 연설이나 강연 형식으로 발표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문 8.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년 지방직 9급]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시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담?”

나는 그를 밀어 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낀 그 음보를 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낀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염! 화염! 빈곤, 주름,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김동인, 「광염 소나타」 중에서 -

- ① 화려한 기교가 없는 연주
- ②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연주
- 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주
-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정답 ④ [현대소설_맥락파악]

<해설> 앞 구절과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 근거할 때 ‘감정의 재’는 야성적 힘, 귀기, 기괴한 감정 등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화염! 화염! 빈곤, 주름,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김동인, 「광염 소나타」(1929)

이 작품은 「광화사」와 함께 김동인의 유희주의 작품 계열의 대표 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곡가로서 영감을 얻기 위해 살인, 방화 등을 저지르며 사회적 금기를 깨뜨리는 백성수(白性洙)라는 작중인물을 통해 작가의 핵심적인 사상인 예술지상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문 9.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6년 지방직 9급]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 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으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다리께 가게루 갈 테니.”
 “어디 …… 참, 판은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뱃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구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돌려서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 인젠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제, 개천가 선술집으루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 참, 판은 술집으루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뭘든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냐?”
 “왜 들어가는지 아르켜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 밑으루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십 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 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 한 푼짜릴 거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은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
 - 박태원, 『천변풍경』 중에서 -

- ①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 ②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② [현대소설_글의 전개]

<해설> 소년은 ‘나’에게 어떤 인물의 행동에 관해 질문도 하고 자신의 추측도 말하면서 ‘나’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소년은 그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두 사람은 한 인물의 행동을 화제로 하고 있다.
- ③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④ 소년이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 박태원, 『천변풍경』(1936)

『천변풍경』은 약 1년 동안 서울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하여 벌어지는 서민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모두 50절로 나누어져 있는 이 작품에는 약 7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묘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나 비판보다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리얼리즘의 확대나 세태소설과 관련된 논쟁을 야기한 바 있으며, 박태원의 창작 기법과 소설 미학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문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년 지방직 9급]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있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재미있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떼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 ① 학생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②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
- ④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정답 ④ [제목 찾기]

<해설> 대학 강의를 실험대상으로 하여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중심 내용은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다. 강의를 열심히 듣고 흥미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재미있게 강의하던 교수가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졌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② 학생과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 ③ 언어 외적인 요소, 즉 강의를 열심히 듣고 흥미를 보이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참고] 이 문제의 제시문은 2007년 국가직 9급에 출제된 지문이다. 문제 유형만 추론하기에서 제목 찾기로 바뀌었다.

문 11.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16년 지방직 9급]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정답 ③ [속담]

<해설>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①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찬국어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

[오답 풀이]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1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지방직 9급]

- ① 이 숲에서 자생하던 희귀 식물들의 개체 수가 줄었다.
-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 ④ 현대 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 난다.

정답 ② [어휘 선택]

<해설> 맥락상 ‘형편, 상황’ 등을 뜻하므로 ‘계제(階梯)’가 맞다.

②	개재(介在)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끼어들’, ‘끼여 있음’으로 순화. 예 사적 감정의 개재가 이 일의 변수이다.
	계제(階梯)	「1」사다리라는 뜻으로, 일이 되어 가는 순서나 절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계제를 밟다/깊이 알려고 할수록 공부에는 밟아야 되는 계제가 있음도 짐작이 되었다.<박종홍, 새날의 지성> 「2」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진량(津梁). 예 변명할 계제가 없었다./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김유정, 봄봄>/아무래도 다른 동무들한테 한풀 꺾이는 것을 액색히 생각해서 기회를 보다가 계제를 만나, 작년 봄에 이 군산 지점으로 전근을 시켜 주었다.<채만식, 타류> 「3」『운동』기계 체조에 사용하는, 옆으로 비스듬히 세운 사다리.

[오답 풀이]

①	자생(自生)	저절로 나서 자람. 주로 식물에 쓴다.
	서식(棲息)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주로 동물.
	기출	[15년 국회직 8급]
③	성패(成敗)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예 성패 여부/성패를 가름하다
	승패(勝敗)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예 승패를 결정하다.
④	유례(類例)	「1」같거나 비슷한 예. 「2」=전례(前例). 예 그들의 잔혹한 통치 정책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유래(由來)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내유(來由)·인의(因依). 예 한식의 유래/유래가 깊다.
	기출	[10년 국회직 8급]

우찬국어

문 13.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16년 지방직 9급]

- ① 타월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정답 ① [품사]

<해설> ①에 나타나는 명사는 4개다. 타월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접미사 '-적(的)'이 붙은 단어의 품사 결정이 출제 포인트이다. 접미사 '-적'이 붙은 단어 뒤에 조사가 오면 그 단어는 명사로 파악한다. '독보적' 뒤에 서술격 조사 '인'이 왔으므로 '독보적'은 명사이다. '독보적 기록'의 경우 '독보적'은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가 된다. 2009년 국가직 9급에서 '가급적 빠른'의 '가급적'(부사)에 관한 품사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 한(限): 14년 지방직 9급에서 출제되었다. '한(限)'은 ((주로 '-는 한' 구성으로 쓰여))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 ② 2개.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동사: 명사 어근+접미사 '-되-'

- ③ 3개.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의존명사 외(外)

- ④ 3개.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 의존명사 이(사람)

문 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16년 지방직 9급]

- ① 학술지의 규정(規定)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③ [한자어의 쓰임]

<해설> ③ 充分(충분): '충분하다'(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의 어근. 充 찰 충, 分 나눌 분

[오답 풀이]

① 規定 규정	規 법 규, 定 정할 정 「1」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규제. [예] 맞춤법 규정 / 대회규정에 따라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탈락하였다. 「2」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예]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내려 봅시다. 「3」 『법률』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함.
規正 규정	規 법 규, 正 바로잡을 정 바로잡아서 고침.
② 構造 구조	構 엮을 구, 造 지을 조.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예] 산업 구조의 고도화.

救助 구조	救 도울 구, 助 도울 조.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④ 現狀 현상	現 나타날 현, 狀 형상 상.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現想 현상	現 나타날 현, 想 생각할 상. 보고 듣는 데 관련하여 일어나는 생각.
懸賞 현상	懸 매달 현, 賞 상줄 상.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걸.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 현상 공모/현상 모집/현상 수배

문 1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지방직 9급]

- ①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 미덥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口蜜腹劍형의 사람이다.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一敗塗地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首鼠兩端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면 참 後生可畏하다는 생각이다.

정답 ④ [한자성어]

<해설> 後生可畏(후생가외)는 후학들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지금의 후학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므로 위 문장의 맥락에 맞지 않다. 2010년 지방직 9급에서 출제된 바 있다.

後生可畏	후생가외 後 뒤 후, 生 날 생, 可 옳을 가, 畏 두려워할 외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선배들보다 학문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도 있으므로 두려워할 만하다'는 말. [10년 지방직 9급, 07년 후반기 법원직]	
출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후학들은 두려워할 만하다. 후진들이 지금 선배들만 못할 거라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 『論語』「子罕」)

[오답 풀이]

① 口蜜腹劍	구밀복검 口 입 구, 蜜 꿀 밀, 腹 배 복, 劍 양날 칼 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써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16년 지방직(사회복지) 9급, 16년 1차 경찰직, 08년 국가직 7급]	
② 一敗塗地	일패도지 一 한 일, 敗 패할 패, 塗 진흙 도, 地 땅 지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름을 이르는 말. 한 고조 유방의 말로서 《사기》의 <고조본기(高祖本紀)>에 나오는 말이다.	

④ 首鼠兩端	수서양단 首 머리 수, 鼠 쥐 서, 兩 두 양(량), 端 끝 단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으로,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	

문 16.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16년 지방직 9급]

사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은행에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관리에 다소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	--

- ①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②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영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① [토론]

<해설> 논제는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은행도 일부 보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영수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은행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수는 개인의 잘못이 다소 인정되지만,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영수와 달리, 민수는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오답 풀이]

- ② 영수는 소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민수는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 ③ 언급된 바 없다.
- ④ 영수는 소비자 개인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년 지방직 9급]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	
--	--

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 ②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다.
- ③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정답 ② [중심내용 찾기]

<해설> 단락의 중심 내용은 단락 전체를 개괄할 수 있는 일반적 내용을 말한다. 단락 전반부에서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서양인들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단락 후반부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동양인들의 생각을 언급한다. 두 병렬적인 내용을 일반화하면 위 글의 중심 내용은 위기 상황에 대한 냉정한 대처와 긍정적 수용이 된다.

(서양)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일반화: 단락의 중심 내용

[오답 풀이]

- ①④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 ③ 제시문에서는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제시문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문 18. 다음 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지방직 9급]

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 금와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중략)…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 만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력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벼를 삼아 떠나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㉔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 하고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가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 ① ㉔ : ‘유화’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㉔ : ‘유화’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㉔ :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㉔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신화_맥락파악]

<해설> ㉔에서 대소는 주몽이 나라의 근심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소는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주몽을 시기하고 있던 인물이다. 이처럼 대소는 주몽과 갈등관계에 있으므로 주몽이 ‘대소’와 모의했다는 ③의 설명은 맞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해모수와 사통한 것이 귀양의 원인이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 ② 유화는 햇빛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된다.
- ④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하늘에 도움을 청하자 하늘이 주몽을 도와주게 된다. 즉, 주몽은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활로 물을 쳤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주몽(朱蒙) 신화	주몽의 신이한 탄생(천신과 수신의 결합), 시련과 투쟁을 거친 고구려 건국 과정을 서술하였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후대 영웅소설로 이어졌다.	출전: 삼국유사
-----------	---	-------------

문 19.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16년 지방직 9급]

근대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독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 ①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 ②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③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④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정답 ③

<해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다른 존재에 복종하고자 하는 양상과 다른 존재를 복종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③의 태도는 다른 존재에 복종하고자 하는 전자의 양상에 해당한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년 지방직 9급]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히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데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즉각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공공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한, 남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또는 파티 도중에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시가를 꺼내어 입에 문다.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뱉어 내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궤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궤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캠페인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즉각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궤련을 피우지 않지만, 싸구려 술집에는 여전히 궤련 연기가 자욱하다.

-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정답 ②

<해설> 난해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체로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사회 현상에 대해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고 기능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우찬국어

①	자문자답(自問自答), 즉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은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③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은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난다.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
④	궤련을 피우지 않는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시가를 피우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려 한다.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궤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궤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